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저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불교 아닌 게 없어요

사회자 오늘은 큰스님께 여러분께서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들 질문을 하시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어저께는 다복하게 토론과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이든지 또는 초목이든지 요만한 씨에서부터 아주 크게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한 가정에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아주 심오한 내 참마음으로부터, 인간의 씨로부터 이 광대무변한 법을 들이고 내는 데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재료를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욕의 여러분은 공부를 참, 공부라는 그 언어도 붙지 않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여여하게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저께 오신 분들을 봐도 아주 감사하리만큼 이 세상에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는 산하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소생하고 또 길러지고 가을에 씨를 거두고 하는 그런 공부를 잘하고 가시더군요. 여러분의 몸과 가정을 화목하게 이룰 수 있고 또 불교를 딴 데서 찾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대로 불법인 줄 알고 찾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진리를 탐구할 수 없고 우리 생활이 불교인 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를 던질 테니까 여러분은 그 대답을 하시고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문을 하고 서로 토론하는 데서 쪼그마한 것부터 세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감지하고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어떠한 거든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거를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놓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질문할까요? 어때요? 좋으시다면요.

대중 가운데서 예.

큰스님 봄의 꽃이 옳습니까, 가을의 씨가 옳습니까? 대답하실 분이 있으면 거침없이 대답하십시오.

신도1(남) 예, 하납니다. 돈오 점수가 하나이듯이 씨와 꽃도 하납니다. 결국은 꽃이 피어야 열매가 맺고 또 그 씨가 다시 뿌려져서 꽃이 맺어지니까 결국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큰스님 하나 있으면 내놔 보시지.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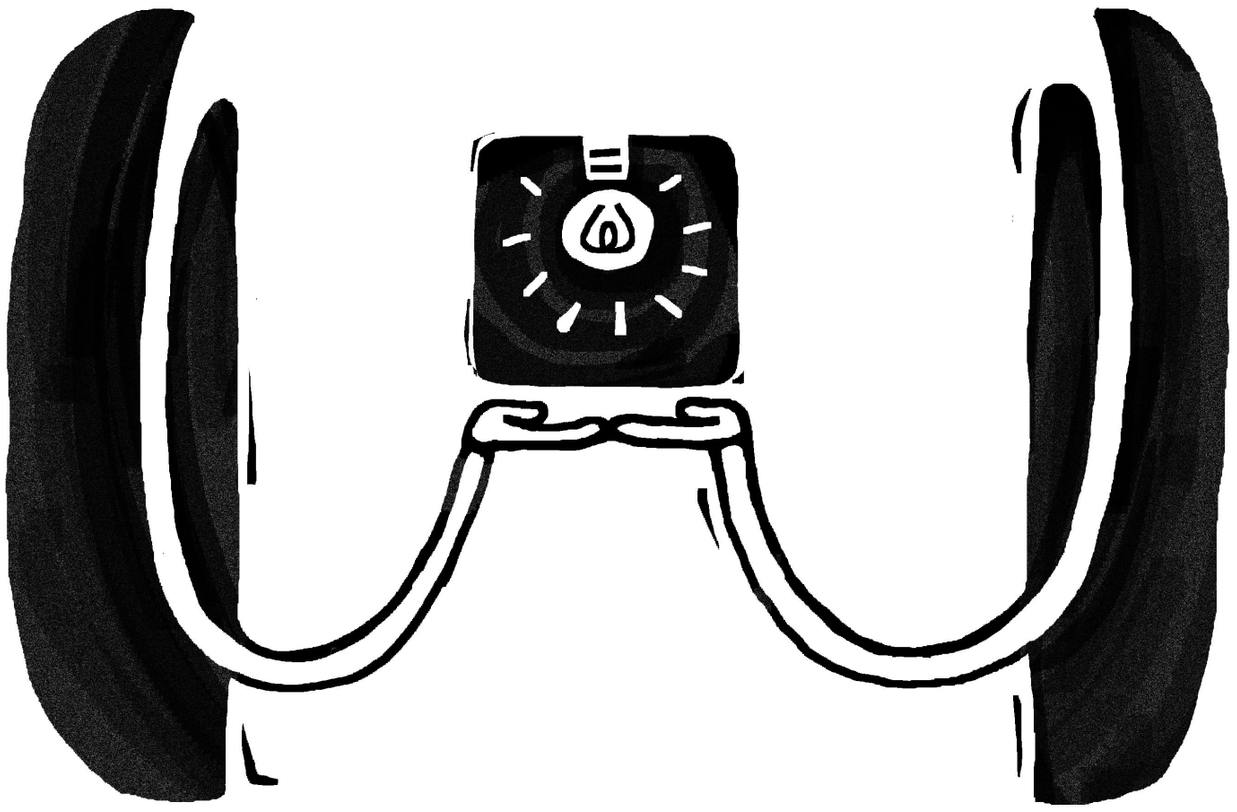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신도1(남) 제가 다시 태어나서 다음에 윤회하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큰스님 허허, 세상에! 대답도 대답 같지 않은 말 하고 있네. 이거 봐! 돈오 점수가 둘이고 둘이 아니고 간에 이 세상은 물레바퀴 돌아가듯 쉴 사이 없이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 그런데 대답이 그렇게 늦어서 되겠어요?

신도2(남) 봄이 오니 꽃이 피고 가을이 오니 열매가 맺습니다.

큰스님 하이구, 그것도 늦어! 하하하…. 아니, 버스 지나간 뒤에 아무리 버스를 타려고 그래도 안 돼.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물었대. 제자더러 하는 말이 "토시가 옳으냐, 부채가 옳으냐?" 하고 물었대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소릴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응? 지금 내가 물은 거나 그거나 아마 어상어상할 거요. 지금 대답하신 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다 옳지. 이것 봐요. 그릇들이 종지도 하나 버릴 게 없어. 풀 한 포기도 버릴 게 없어. 옳은 거야 다 옳지. 대답 방법이 그렇게 게을러서, 벌써 둘로 나누어서 말하는 그 요량이 틀렸다는 거지. 그렇게 해 가지고 더뎌서 어떻게 그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걸 따라나서노?

신도3(여) 예. 꽃이 곧 씨고 씨가 곧 꽃입니다.

큰스님 그래서 그 토시와 부채를 물은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대요. 둘이 있었는데 어떤 스님은 "그 토시도 옳고 부채도 옳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고, 그러니까 또 질문했던 사람이 "그만하면 됐다." 그러는데 그때 아마 큰스님이 열반하셨던 모양입니다. "열반을 하신 스님이 계신데, 다비식을 하는데 저 너머 장승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 그러고 물었대.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그렇게 또 물을 수밖에. 남 두 번 수고를 하게 만들어, 응? 하하. 그것도 그렇게 두 번 수고라고 하는데 글쎄, 물론 꽃이 씨고 씨가 꽃이겠지. 그러나 그것은 말법밖에 되지 않지. 진짜로 여기 감응이 돼서 우리가 진짜로 실질적으로 자기 법의, 법바퀴가 굴러서 그것을 대답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야, 똑같은 대답이라도.

뉴욕의 식구들이 얼마나 공부가 늘었나 하고 한번 질문한 겁니다. 하하하….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꽃도 없고 씨도 없습니다." 했대요. 그러니까 "토시도 없고 부채도 없다."고 대답을 했대요. 대답을 하는 그것이 끊어지기도 전에 그냥 소리를 질렀대요. (왼손 검지를 들어 보이시며) "저 산에 봄이 왔구나!"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괜히 뭐 귀신 방귀 뀌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이지 자신의 그 마음이 발로가 돼서, 둘이 아닌 도리를 다시 뭉쳐 놨기 때문에, 그 둘이 아닌 나툼을 알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인과로 인해서 업이 돼서 뭉쳐진 여러분의 오장육부에 있는 중생들은 어떻게 리드해서 이끌고 가시렵니까? 예전에 부처님들께서도 그러셨고 조사들께서도 그러셨고 팔만대장경에도 그렇고 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다 부처님인데 부처라고 한다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여러분이 과거에 하고 산 것만큼 차원대로 인과로 인해서 업이 된 그 수없는 중생들은 어떻게 제도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 마음 의식들을 다스려 가면서 이끌어 가면서 실천에 옮기면서 또는 실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오장육부와 더불어 내면세계, 바깥 생활, 사회생활 이 모두를 실험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보배는 바로 여러분 속에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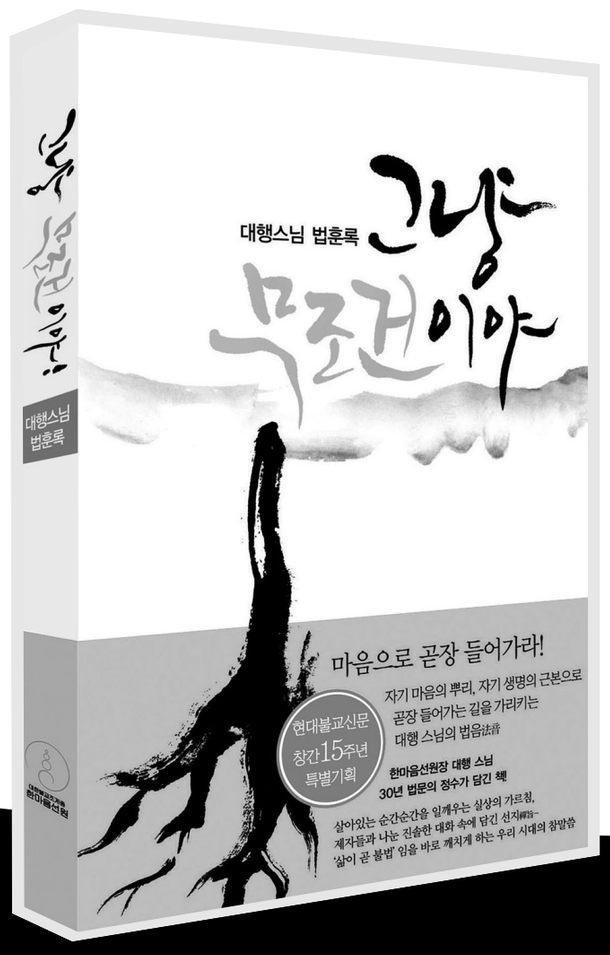
어저께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풀이하는 말도 있으니, 되풀이해서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시렵니까? 나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심심해서 안 되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가정에서의 조그마한 거라도 허심탄회하게, 지어서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빼놓고 이 세상이 벌어지지 않았고 또 생활 빼놓고 종교는 없어요. 불교는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조그만 거 하나로 인해서 크게 물리가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서슴지 말고 나에게 '가다가 이런 것이 참 이상하더라. 또 이런 것이 답답하더라. 이런 것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질문에서 아마 거름이 될지도 모르죠.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우리 몸이 중생인데요, 제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큰스님 그거 간단하죠. 여러분의 마음 내는 지배인은요, 그 마음을 내면 속의 중생들이 전부…, 의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보편적인 방편으로 헤아린대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이, 의식들이, 모습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따진대도 어저께 말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이따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편안하세요

☞ 25면에서 계속

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줄잡아서 11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숫자를 딱 맞춰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11억 중에 하나만, 그거 하나가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그 한생각에 수천수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효가 모래알 같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리드해 가지고 나가려면 모든 게, 말하자면 그 중생들이 다 그 부처님을 모신다고 합시다. 그런 생명들, 모습들, 그 의식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수없이, 자기가 악이든지 선이든지, 쪼끄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지은 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그렇게 한데 합쳐져서 수많은 모습들이 그냥 한데 모일 때, 바로 어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몸 하나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받았는데 그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산 거를 짊어지고 거기에 삼합이 한데 합쳐집니다. 그럼으로써 인생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나와서 수없는 그 마음들이 속을 상하게도 하고 안되게도 하고, 될 듯하면서 안되게 만들고, 만약에 원수로 인연을 지은 업이 있다면 그냥 속을 썩여서 문드러지게 만들고, 남이 속을 썩여서 자기가 못 견디게 만들고, 병고를 일으키고 온통 뭐, 그건 말도 할 수가 없는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고 마음을, 즉 말하자면 비우라 이 소리죠. 그건 왜?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속아서 말리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한테서, 너희들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알아서 해라." 거기다 놓아라 이 소립니다. 그걸 자세히 얘기하자면 지금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말로 오신통을 말을 하자면 탐지기, 팩스 또는 무전통신기, 망원경 또는 컴퓨터 이 다섯 가지인데 누진통은 그 오신통에서 벗어난 레이더망입니다. 그렇다면 오신통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느냐. 그 숙명통이라는 컴퓨터에 과거에 살던 자기 업대로 그냥 전부 인과로서 다 거기에 입력이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단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입력을 해 놓은 거를 지워 버릴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 작업을 어떤 거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입력이 된 것이 바로 지금 현실에 살아나가는 대로 나오는 거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용도가 닥치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다 다시 맡겨 놓으면 거기 입력이 다시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그 과거에 입력된 것은 지금 현실에 또 입력을 한다면, 나오는 걸 되놓는다면 과거에 입력된 건 다 무너지고 말아 버리는 겁니다. 오간지옥이라든가 업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세균성, 모든 업보, 화탕지옥이니 뭐니 다 무너지는 거라. 그리고 현실에 입력되는 것이 다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평화스럽고, 이 몸이 건강해지니 좋고 마음 편안하니 좋고, 가정 또한 악한 일이 생기지 않으니 좋고 우환 생기지 않으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애들 속 안 썩이니 좋고…. 모두가 전력과 같고 광력과 같아서, 참 요 말을 안 해 드렸네요.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서 그렇게 대두돼서 나가기 때문에 재료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오븐과 같아. 오븐과 같은데 전기가 전력이 없다면 어떻게 오븐을 돌리오? 물건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해 먹소? 이게 다 맞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알맞게 맞춰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 내기 이전은 불성, 부처라고 했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이야, 그냥 그대로. 몸을 움죽거렸다고 하면 화신이야, 또. 그러니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갖추어 가지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 썩지 말라 이거야. 하늘이 무너진대도 속 썩지 말고. 그래야 병이 안 생기거든. 혈맥이 막히면 용납 없어요. 암도 생기는 게 거기서 오는 거고, 여러분이 다 그런 거라.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돈을 벌려고 악을 악을 쓰고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덤비는 사람이 병들고,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병들고, 또 속 썩어서 그냥 어쩔 수가 없어서 펄펄 뛰고 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려. 암이라는 것도 지금 알았지 옛날에야 암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고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암 잘 걸리죠, 백혈 잘 거리죠, 관절 잘 걸리죠, 풍 잘 걸리죠? 이건 뭐, 혹이다 뭐다 하고 머리에도 뭐, 많이 걸리죠, 눈 시력 나빠지죠? 전체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질문 받는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 어떡하지? 조금만 더 말하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나가는 데에 여러분이 없다면 불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어디 있겠으며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체라, 모두가. 그러니 모든 것은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고, 어차피 이 세상에 나와서 한 번 갈 거 죽는 게 뭣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니 아예 모든 것은 거기 맡기고, 오는 대로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그냥 움죽거리세요, 편안하게. 이따 죽는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편안하게요.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지만 가정도 화목하게 되고 웃고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야 어찌 사람 산다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불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저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불교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 여기 미국에 오니까 기독교 가톨릭교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한 버스를 타고선 네 자리 내 자리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도리를 모르겠습니까? 남이 일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보지 못합니까?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한생각 내는 데에 체가 없는 줄 여러분도 번연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원인이에요, 모두가. 여러분이 가난한 것도 또 질병을 앓는 것도.

또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질병을 앓지 않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다가 '어, 내가 인제 이만하면 옷을 좀 바꿔 입어야겠다. 요새 참, 유행하는 옷이 나왔는데 내 이건 구식 아닌가?' 이러고서 좀 바꿔 입어도 좋습니다. 자손들을 애를 쓰게 하고 3년씩, 2년씩, 5년씩 이렇게 앓아 가지고 똥오줌 다 받아 내게 하고 그렇게 분잡을 떨고 갈 게 뭐 있습니까? 네?

정말이지 아프면 의욕이 생기질 않아요. 남들이 왜 저렇게 아프다고 하나 그러고 나도 아파 봤거든요. 나도 별일 다 해 봤어요. 그랬는데 그거 참 살맛 안 나겠더군. 어떻게 살맛이 나겠어요? 벌써 짜증부터 나지, 아프면 벌써 의욕이 없어지지, 그것도 하루 이틀 앓는 거라야 호사로, 자식들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여보, 당신 어디가 아파?" 이러지 그게 한 달 두 달, 일 년만 가 보세요, 아, 누가 "여보, 어디가 아파?" 이런 소리가 나오나? 이제 지쳐서 그냥 말로 "뭐 좀 잡숴어요?" 이 정도가 그래도 효자죠, 효부고요. "방이나 뜨뜻합니까?" 하고 이런 말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효부 효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말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러니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위로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래로는 햇볕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추어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몸 벗기 전에 부딪침이 있어야 공부하거든. 부딪침이 없고야 고생이라고 어떻게 하나? 안 그런가? 그러니까 걱정을 마라. 아니, 고생하는 사람이나 고생 안 하는 사람이나 살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서 지천이라도 병이 난다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 가지고선 죽느니 사느니 하지, 또. 그러니까 뭐든지 알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든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많이 먹으면 그게 탈이 나. 여기 보약 많다고 보약 많이 잡숫지 말고 식사를 알맞게 잘 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여러분이 괴상하게 물으면 나도 괴상하게 나갈 거고, 허허허, 여러분이 좋게 나오면 나도 좋게 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작으면 나도 작아질 것이고 여러분이 크면 나도 클 것이고. 어때요? 우리 화목한 가정과 같이. 이 우주 천하는, 삼천대천세계를 부처님께서는 같이 한마음으로다가 그저 다 요리를 해서 그냥 탁 주셨대요. 그래서 태양은 씨를 뿌리고 또 산하대지는 그 씨를 뿌린 걸 길러서 가을에 씨를 거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잘 생각하셔서, 불교라는 것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또한 우리 서로 말하는 이 말 자체가 교(敎)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라고 그러고 불교라고 그러고 또 알라신교라고 그러고 티베트 불교라고 그러고 뭐 남묘호랑개교라고 그러고,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글쎄, 지구 안에 다 있지 지구 바깥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몸 안에서 벗어나고 지구 안에서 벗어나고 우주 안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인간이라고, 불제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이 세상을 모두 탐험해 가면서, 앉아서 모든 나무의, 아니 다 죽어 가는 한 그루 참고목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그럽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고생이 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짐승의 몸으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 습이 붙어 가지고 짐승의 그 무명을 벗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천 년 만에 한 번 벗거나 말거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도 이 인간 몸에서 벗어나야 인간을 굴리죠. 자기를 굴리죠. 그 많은 중생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의식들을 다 한마음으로 몰고 가려면 그래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것쯤은 그 속에다 놓을 줄 알아야 되죠. 하인을 부려도 똑똑히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라면.

여러분이 부처라면 부처는 한생각을 내서 법신으로서, 보살로서, 즉 이 중생들을 보살로 만들려면 그렇게 한마음으로 굴리고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화해서 리더가 되고, 즉 말하자면 입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보살이 돼서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털구멍으로 드나들면서 사람을 전부 32응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을, 누가 어떠한 말을 해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 찰나에 드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달렸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잘났으면 나도 잘났고 여러분이 못났으면 나도 못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체를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육신 안에 들어 있는 그 중생들을 딴 남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미생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그 과정을 모르걸랑은 네 속을 봐라, 네 속!" 그러는 겁니다. 내 속에 다 들어 있어. 그러니 내가 있는 데서 그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없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 큰 거부터 알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알면 그것은 모두 물리가 터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또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무슨 질문을 해?'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서 그렇게 대두돼서 나가기 때문에
재료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위 법문은 1990년 12월 8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